전남 홀로사는 노인 11만명 돌봄서비스 혜택은 1만7000명

예산 증가에도 인력은 태부족…대책 절실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35만명 중 혼자 사는 독거노인 비율이 무려 32.2%에 달하는 반면, 이들에 대한 대민서비스는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5만900명으로, 이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은 32.2%인 11만2883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여수시가 3만6601명으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았고 순천(3만1204명), 목포(2만5134명) 순이었으며 군 단위 지역에서는 고흥(2만3651명), 해남(2만90명), 보성군(1만4415명), 완도(1만4329명) 등의 순이다.

홀로 사는 노인은 여수시(1만1477명), 순천(9204명), 나주(7449명), 고흥(7442명), 목포시(7272명) 등으로 많았다.

독거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안군으로 65세 이상 노인 1만2862명 중 5401명(42%)이 혼자 살고 있었다.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예산도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노령연금지원과 노인돌봄바우처 등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예산은 2009년 2838억원에서 2010년 3053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예산도 3109억원에 이른다.

반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대상자나 관련 예산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현지에서 독거노인과 직접 대면하고 관리하는 돌봄서비스 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시·군별 사회복지협의회나 노인복지센터의 1~2명 등 총 26명이 노인돌보미 636명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혜택을 보는 독거노인은 1만700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0만여명은 충분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특성상 노인인구도 많고 독거노인 비율도 높아 이들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 시군별로 지역현장에 맞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별도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양컨테이너부두의 올 하반기 물동량이 인천항에도 못 미치면서 자칫 국내 2위 자리를 넘겨줄 위기에 처했다. 7일 광양컨테이너부두 야적장의 모습.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종합스포츠센터 오늘 남악 현장서 첫 삽

전남도는 8일 오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건설 현장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종합스포츠센터' 착공식을 개최한다.

전남도 종합스포츠센터는 3151㎡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5630㎡) 규모로 지어지며 2012년 10월까지 다목적 체육관과 회의실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시설로 조성된다. 국·도비 등 135억원이 투입된다.

스포츠센터가 조성되면 현재 광주에 위치한 전남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등도 이전하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인천항에도 뒤진 광양항 컨물동량 '비상'

10월 16만3000TEU 지난해보다 9.4% 감소

광양항의 물동량 창출에 비상이 걸렸다. 올 하반기 들어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인천항에도 못 미치면서 자칫 국내 2위 자리를 넘겨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10월 컨테이너 물동량이 181만7000TEU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8%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경우 작년 같은 달 대비 16.9% 늘어난 137만7000TEU에 달했다.

반면, 광양항의 물동량은 16만3000TEU로, 전년 같은 기간(180만TEU)보다 9.4% 감소했다.

환적 화물만 작년 같은 달보다 12.4% 늘어났을 뿐 수입 화물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4%, 수출 화물은 11.8% 각각 감소하는 등 수출·입 화물 모두 감소세를 면치못했다.

특히 인천항에도 밀리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동북아 경제 중심항'및 국내 2위 항만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월 인천항의 물동량은 17만TEU로, 광양항을 앞섰다. 중국 수출입화물 증가 덕분으로, 작년에 비해 3.8% 증가한 수치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7월(16만8000TEU), 8월(15만6000TEU), 9월(16만8000TEU) 등으로 4개월 연속 광양항을 넘어서고 있다.

광양항의 경우 ▲7월 16만7000TEU ▲8월 14만8000TEU ▲9월 16만3000TEU 등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양항 물동량 창출을 통한 항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송영길 인천시장 '교류 특강'

강운태 광주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이 두 광역단체 간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 특강을 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은 오는 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청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광주, 인천, 그리고 대한민국' 주제로 특강을 한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오는 17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시청 공무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번 교류특강은 양 시장이 자치단체간 교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과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강 시장과 송 시장이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양 시장의 교류특강을 계기로 양 자치단체의 우호증진과 교류협력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뉴스 브리핑

광주영어방송재단 방송본부장 공개 채용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영어방송재단은 7일 방송본부장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방송본부장은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공고를 거쳐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치르게 되며, 방송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여수 사회적기업 '희망키움' 박람회 기념품 제작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는 여수지역 사회적 기업인 '희망키움'이 박람회 퍼즐부문 공식 상품화권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희망키움은 단순 맞추기 퍼즐부터 교육용 퍼즐,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어린이 퍼즐 등 박람회와 관련된 모든 퍼즐 제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 2015년으로 연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斷續)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2015년으로 미뤄진다.

애초 정부는 이들에 대해 2008년부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늦췄다.

내년부터 공무원 휴직후 대기업·로펌 못간다

내년부터 공무원이 휴직하고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으로 옮길 수 없으며 보수 수준도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인도네시아서 해조류 대량양식 추진

전남대-조선대와 기술개발

전남도가 바이오에탄올 성분이 높아 미래 에너지 개발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해조류의 대량양식 사업을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는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 조선대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등과 함께 해외 해조류 대량양식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09년 체결한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주와의 자원개발 협약에 따라 제2차 '코토니'양성시험을 실시한다.

열대 해조류의 일종인 코토니는 그동안 식용으로만 이용됐으나 바이오에탄올 성분 함량이 높아 바이오디젤 연료 생산에도 이용가능한 대체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해역에서는 연 1회 정도 밖에 수확할 수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나 열대에서는 연중 수차례 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1차 시험양식 결과 다른 해조류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르고 연중 5~6회 수확도 가능해 대량 생산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판단하고 있다.

전남도는 시험 면적을 늘린 2차 시험양식을 조만간 실시해 일부 시료는 국내로 들여와 경제성 여부를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본 뒤 본격적인 대량양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주도 오는 18일 전남도내 해조류 양식장과 가공업체를 견학한 후 양국간 양식기술 교류와 해양에너지 자원 개발에 관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訃告

柳完秀大人(前·成均館顧問) 東江 柳漢相先生께서
老患으로 不幸히 今月 十二日 午時에 棄世하셨기에 儒林
葬으로 擧行함을 알려 드립니다

發靷日時 : 辛卯 十月 十五日(暘 十一月 十日) 午前 九時
發靷場所 : 光州市 北區 角化洞 그린장례식장(농산물공판장 앞)
(0六二)二五0-四四一一
葬 地 : 潭陽郡 大德面 雲巖里 先塋下

嗣子 完 秀
女 秀
子婦 尹 秀
孫 鄭 善 貴 永 順 準
趙 任 淑 善 善 善